



자 조 금 소 식

국산 돼지고기 홍보대사 '현영' 위촉



올해 국산 돼지고기 홍보대사로 인기 연예인 '현영'이 위촉됐다.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김건태)는 지난 3월 14일 경기도 파주에서 진행된 국산 돼지고기 소비촉진 TV광고 촬영장에서, 가수 겸 연기자, MC 등으로 활약하고 있는 인기 연예인 현영을 국산 돼지고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김건태 양돈자조금관리위원장과 김동환 양돈협회장, 정일희 대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김건태 위원장은 이날 현영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국산 돼지고기 홍보에 앞장서줄 것"과 "삼겹살 위주의 구워먹는 문화를 탈피해 돼지고기를 삶아먹는 식문화 홍보에 힘써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

현영은 국산 돼지고기 소비촉진 TV광고 모델로 활동하게 된 인연으로 지난 2005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산 돼지고기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현영이 출연하는 올해 TV광고는 4월 1일부터 공중파 방송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2005년에 국산 돼지고기 홍보대사로 활약한 현영을 기억하는 소비자가 많아서 올해 다시 위촉하게 됐다"며 "건강미인의 대표인 현영의 건강한 이미지가 국산 돼지고기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고, 저지방부위인 등심, 안심, 뒷다리살 소비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TV·라디오광고 대행사에 (주)커뮤니케이션월 선정

올해 국산 돼지고기 소비촉진 광고를 제작 추진할 TV·라디오광고 대행사가 최종 선정됐다.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김건태)는 지난 2월 27일 aT센터 3층 소회의실에서 '2007년도 TV·라디오광고 대행사 선정'을 위한 2차 심사위원회'를 열고 4개 업체의 경쟁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주)커뮤니케이션월(대표 최진수)을 최종 선정했다. 또 이번 심사위원회는 12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업체 선정에 더욱 공정성을 기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주)커뮤니케이션월은 올해 황금돼지해와 건강트렌드를 접목한 아이디어로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하이마트, 대우일렉 등 유명 TV광고를 대행한바 있다. 새로운 TV·라디오광고는 오는 4월 1일부터 공중파방송을 통해 전국에 방영될 예정이다.

PR대행사에 (주)케이피알어소시에이츠 선정 온라인홍보 대행사에 디노커뮤니케이션즈(주)

2007년도 국산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PR대행사에 (주)케이피알어소시에이츠(대표 신성인), 온라인홍보 대행사에 디노커뮤니케이션즈(주)(대표 이상균)가 재선정 됐다.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6일과 7일 aT센터 소회의실에서 PR대행사와 온라인홍보 대행사 선정을 위한 2차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쟁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대행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양돈자조금 거출 제고 위해 축산물위생처리협에 3천만원 지원

양돈자조금관리위는 원활한 자조금 거출을 위해 축

“황사에는 돼지고기를 먹자!” 돼지고기 체내 중금속 배출 도움 ‘입증’

돼지고기가 체내의 중금속 배출을 도와주는 식품이라는 것이 다시 입증됐다.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김건태)는 지난 2월 26일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산업체 근로자들에게 돼지고기 요리를 6주간 규칙적으로 일정량 섭취토록 했을 때 혈중 납, 카드뮴 농도가 감소해 돼지고기가 체내의 중금속 배출을 도와주는 식품이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식품연구원(원장 강수기)에서 치과기공소, 엔진부품공장, 피혁가공공장 등 3개 작업장의 총 58명의 근로자에게 6주 동안 매주 2~3회, 100g~150g의 돼지고기를 식사 시에 제육볶음, 돈가스, 갈비 등의 요리로 섭취토록 한 후, 혈액과 소변검사를 통해 신기능 지표와 혈청 지질 농도 등 변화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돼지고기가 체내 먼지나 중금속 해독에 좋다는 민간의 속설은 오래 전부터 내려왔으나,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미미한 상태였다. 물론 돼지고기 지방의 녹는점이 체온보다 낮아서 체내의 중금속을 흡착하여 배출해 준다는 것이 과학적 근거로 알려져 있고, 1998년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도 인위적으로 납과 카드뮴을 투여한 실험용 쥐에게 돼지고기를 첨가한 사료를 섭취토록 했을 때 체내의 납과 카드뮴의 축적량이 감소됐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다.

연구의 책임을 맡은 한국식품연구원의 한찬규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1998년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주는 자료로, 돼지고기가 인체에 축적된 중금속 해독에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며 “돼지고기 요리를 섭취한 공장 근로자들의 혈중 납과 카드뮴 농도가 섭취 전과 비교해 납은 약 2%, 카드뮴은 약 9%가 감소했으며, 이러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돼지고기가 유해환경 내 근로자는 물론이고, 황사와 미세먼지 등 오염에 노출된 일반인에게도 유익한 식품이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기상청의 전망에 따르면 3월, 4월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황사는 최근 중국의 황사 발원지 기온이 평년보다 약 3~5°C 높고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황사 발생 가능성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의학전문가들은 올해 황사가 전년과 비교하여 그 양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납과 같은 중금속을 포함한 유해물질의 함량이 높아져 더욱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3일 “물을 많이 마시고 돼지고기를 섭취하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황사대비 식품 안전관리요령’을 식품공업협회 및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34개 식품관련단체에 배포한 바 있어 이번 연구결과는 황사의 피해에 민감한 국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물위생처리협회에 거출 홍보비 3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관리위는 지난 3월 8일 금년도 2차 회의를 열고 자조금 거출률을 95% 이상 올리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한편 위생처리협회는 3월 6일 자조금 관리위에 보낸 공문을 통해 협회가 자조금이 의무적으로 수납될 수 있도록 회원 도축장에 대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 납입률이 전국 평균 이상 되도록 노력할 것을 밝혔다. 협회는 또 자조금 미납 농가를 관리위에 명

단을 제출키로 하고 3천만원을 자조금사업 용도에 사용하는 한편 사용 내역을 관리위에 통보키로 했다. 또 용도의 사용시 협회가 책임질 것을 밝혔다.

또한 관리위는 양돈산업과 자조금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정관과 복무규정에 대해 개정했다. 또 김동환 경기도관리위원의 양돈협회장 당선으로 공석된 경기도 관리위원회에 김건호씨를 추천, 오는 28일 대의원회에서 승인받기로 했다. **양돈**